

포스터 II-3

제 목	국 문	직업성 긴장수준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고호모시스테인혈증과의 관련성		
	영 문	Association among job strain, psychosocial distress and hyperhomocysteinemi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차봉석, 고상백, 장세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영 문	Bong Suk Cha, Sang Baek Koh, Sei Jin Cha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분 야	환 경	발 표 자	고 상 백	
발표 형식	포 스텐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8 년 10 월			
<p>1. 연구 목적</p> <p>심혈관계 위험인자 중의 하나인 혈중 호모시스테인과 직업적 특성(직업성 긴장수준) 및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p> <p>구체적으로는 첫째, 직업성 긴장수준에 따른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둘째,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혈중호모시스테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셋째,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여하는 Folate와 비타민 B12의 혈중농도와 호모시스테인의 혈중농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고호모시스테인혈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이 연구는 원주지역에 위치하는 50인 이상의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p> <p>설문조사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조사자 직접 기입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직업성긴장 수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혈액검사는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호모시스테인, Folate와 비타민 B12 등을 조사하였다.</p> <p>분석방법은 직업적 특성, 직업성 긴장수준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호모시스테인 혈중농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호모시스테인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folate와 비타민등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혈중호모시스테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p>				

3. 연구 결과

1. 직무요구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집단이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무자율성의 경우 높은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높았다.
2. 직업성 긴장수준을 고긴장집단과 저긴장집단으로 구분한 후 단일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고긴장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3. 사회심리적스트레스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위험군이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유의하게 높았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folate가 낮았다.
4. 호모시스테인은 생활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흡연군과 음주군이 호모시스테인 혈중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5. Folate와 비타민 B12의 혈중농도와 호모시스테인의 혈중농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folate와 비타민은 호모시스테인과 역상관관계에 있었다.
6. 혈중호모시스테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직업성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4. 고찰

동맥경화 과정에 관여하는 호모시스테인은 cholestrol과 같이 심질환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호모시스테인의 10%의 증가는 심질환 발생을 10% 상승시키는 것과 같으며, 다른 위험인자와 동반될 경우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업장내에서의 직업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경우 최근 심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심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규명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호모시스테인과 근로자의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긴장 집단의 경우에도 유의하게 높음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알려져 있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 뿐만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평가하여 folate와 비타민 B12의 투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